

환경 친화 양돈장 기준 고시

농림부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22일 시행됨에 따라 지정 기준을 정해 고시하였다. 기준에 따르면 환경친화축산농장은 축산업 등록 및 해협 지정 농장 가운데 지정 신청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밀도를 적정 수준(두당 임신돈 9.7㎡, 분만돈 3.9㎡, 육성돈 0.6㎡, 비육돈 0.9㎡)으로 유지하고 돈사 간 5m이상 거리를 뒀야 한다. 이와 함께 소독시설, 가스 및 먼지 제거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특히 양돈농가의 경우 폐사축 처리기 등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분뇨를 전량 자원화해 농지에 환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분뇨 처리·보관시설, 살포 초지 및 농경지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정수 등을 통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돈사 및 분뇨 관리비용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 신청 시 농림부 장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종돈 판매 두수가 감소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

급물량이 없어 호황을 누렸던 종돈 판매두수가 갈수록 줄고 있다는 것이다. 판매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소 5%~최대 20%까지 종돈 판매두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종돈 판매두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돼지 값 하락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지난해 들어온 종돈 수입물량이 많아 종돈 판매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양돈업이 사료 값 인상과 미 쇠고기 수입 등으로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도 종돈 판매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업계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돼지시센터도 ‘종돈장’컨설팅 지원 대상에 포함

농림부는 최근 “올해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8개 브랜드 경영체 소속 농가들이 내년도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사업의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완, 각 시도 및 관련단체에 통보하였다. 올해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브랜드경영체는 △제주양돈조합 △부경양돈조합 △대상팜스코 △목우촌 △도드람양돈조합 △선진 △진왕영농조합

△강원창법인 등이다.

농림부는 또 돼지AI센터도 ‘중돈장 방역관리요령’에 의거한 중돈장에 포함되는 만큼 정부의 지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육돈을 포함해 사육규모가 1천두 이상 농가만으로 지원대상자를 제한, 돼지AI센터의 경우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사업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I센터 우수 씨수돼지 구입자금 일부 지원

농림부에 따르면 고능력 중돈의 AI 활용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검정결과 능력이 우수한 상위 20%의 씨수돼지를 구입할 경우 두당 40만원을 보조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 100두에 한해 4천만원 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돼지 검정능력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돈의 능력 개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돼지 값 경영비 80% 이하 시 자돈 도태해야

내년 돼지 가격이 경영비(’06년 16만2천원)의

80% 이하(13만원)를 형성할 경우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비축지원은 물론 자돈도태 및 모돈 감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농협 양돈수급안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양돈수급안정 프로그램 4개(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돈가가 경영비의 95% 이하(15만4천원)를 유지할 경우 비육돈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동시에 민간비축 지원을 주장하였다. 90%(14만6천원)~85%(13만8천원)수준 이하를 형성할 경우 비육돈 조기 출하, 민간비축지원 외 모돈을 감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농협은 생산 과잉 또는 과소 상황 발생으로 돼지 값이 우려될 경우 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홍보를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중돈 수입 두수, 지난해와 비슷

11월 중돈수입두수가 565마리로 10월 304두 대비 261두, 전년 같은 기간 295두 대비 270두가 각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1월말 현재 중돈 수입 두수 통관기준 2,011마리로 작년 동기간 2,048마리에 비해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11월말 품종별 수입 두수를 보면 ▲버크셔 226두(암186, 수40) ▲햄프셔 15두(암13, 수2) ▲랜

드레이크스 332두(암254, 수78) ▲요크셔 912두(암812, 수100) ▲두록 526두(암113, 수413)로 집계되었다. 나라별 수입 두수를 보면 미국 607두, 캐나다 1천101두, 기타 303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러시아·대만 중심 돼지고기 수출 확대 방침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는 돼지고기 수출 활성화와 관련, 러시아와 대만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돼지고기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물량을 올해의 7,000여 톤 보다 3배가량 많은 2만5,000톤 정도로 잡고 수출에 전력할 계획이다.

협회는 또 필리핀, 태국 등 기존 시장을 중심으로 정육 외에 간이나 스킨 등 부산물을 집중 수출하는 한편 홍콩 등 신흥시장 개척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오는 2010년까지 안심과 등심, 후지 등 국내 생산량의 20% 수준인 정육기준 6만톤 정도의 돼지고기를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다.

7개 항생제 내년까지 사료 첨가

내년 4월부터 배합사료 첨가제에서 제외될 것으

로 보였던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옥시 테트라사이클린4급암모늄, 바시트라신아연,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염산린코마이신, 페니실린 등 7개의 항생제가 '09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농림부는 지난달 13일 관보를 통해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중 개정' 고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배합사료 내의 첨가제는 25종에서 18종으로 줄었고 18종마저 201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유해물질 중 비소(As)의 허용기준을 배합사료 프리믹스 100ppm에서 12ppm으로, 기타 배합사료 10ppm에서 2ppm으로, 단미사료 100ppm에서 40ppm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농림부는 앞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도모하고 항생·항균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농가에까지 공급되는 부작용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사료원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이 1년간 연장

농림부는 국제곡물가격 및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사료 수급 및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료원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키로 하였다.

이는 관련업계에서 사료원료구매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곡물가격 및 해상운임 상승으로 배합사료가격 추가 인상이 우려

됨에 따라 이처럼 상환기간을 연장기로 했음을 설명하였다.

농림부가 사료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국제곡물가격 및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자금압박을 해소해 사료 원료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4%(생산자단체 3%), 1년거치 일시상환이며, 2006년 사료원료구매 지원금액은 15개 업체에 350억원이다.

시중에 유통 국내산 돼지고기, 안전성 입증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내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항생물질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에서는 항생물질 등 잔류물질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식용란 등 333건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닭고기와 식용란 각 1건에서만 항균물질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번에 검출된 항균물질도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이라며 “유통 중인 국내산 축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축산물 생산과 유통에 관한 ‘규제맵’ 만들어져

국무조정실은 지난 27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여러 법령이 서로 얹혀 있어 내용이 복잡한 10개 분야에 대해 ‘규제맵’을 작성하면서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사항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rrc.go.kr) 자료실의 ‘규제맵’에 접속, ‘축산물 생산·유통과정’을 누르면 축산업 등록, 가축 인공수정 및 분뇨처리, 가축 질병관리 등 가축 사육 단계의 각종 규제사항과 관련 법령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가축 거래·도축단계, 가공·처리단계, 보관·운반·판매단계는 물론 축산물 수출·수입 단계에서의 규제 내용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농축산물 무역적자 100억 달러 넘을 듯

세계 곡물값이 크게 오르고 외국산 육류 및 과일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올해 농축산물 무역 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aT(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수산물무역정보(KATT)에 따르면 올 1~11월 농축산물 수입량은 121억3,243만달러 어치(2,493만

7,000t)에 달하는 반면, 수출량은 21억5,517만달러어치(131만t)에 그쳐 99억7,726만달러어치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농축산물 적자 규모가 26.8% 커졌을 뿐 아니라 연말까지 한달을 앞둔 시점에서 이미 지난해 전체 적자규모(86억8,538만달러)를 10억달러 이상 넘어선 것이다. 이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올해 농축산물 적자는 110억1,3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2002년 61억7,695만달러, 2003년 66억4,548만달러, 2004년 72억7,872만달러, 2005년 76억8,633만달러 2006년 86억8,538만달러 등 해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경우 수입량(100만6,650t)은 지난해보다 4.2% 늘었지만 수입액(29억5,833만달러)은 19.5%가 증가하였다.

폐사 줄이려면 돈사 환기 철저

돈사 내 단열과 환기조절 관리 미흡으로 돼지 폐사가 급증,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겨울철을 맞아 호흡기 질병에 의한 폐사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계절적 요인보다 ‘단열과 환기’라는 환경적

요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농가들의 부주의로 폐사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양돈장을 방문해보면 온도 및 습도, 환기량 등 환경적 요인을 돼지 기준이 아닌 작업자 기준에서 바라보고 돈사를 운영, 이에 따른 폐사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돈사 내 설치돼 있는 콘트롤 박스를 날씨변화와 돈사 환경에 맞게 그때 그때 설정해야하지만 처음 설치 때 설정된 수치를 변경하지 않는 농장주들의 고집도 폐사율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 미국

돼지 값 60달러대로 폭락

미국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11월 돼지 값은 100kg 기준 68.4달러로 10월 82.4달러보다 17%, 지난해 동월 93.6달러 대비 27%가 각각 하락하였다. ‘04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10월보다 무려 14달러가 더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도체 값 역시 100kg 기준 122달러를 형성해 한달전과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각각 9.2%, 16%가 하락하였다.

이에 대해 미 육류수출입협회 관계자는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국내 수요는 물론 수출이 부진한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의 주요 돈육 수출국인 멕시코가 경제 불황으로 돈육 수입을 줄인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하였다.

◆ 중국

PRRS 피해 진정

중국의 돼지 집단폐사를 불러왔던 PRRS가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중국의 PRRS 피해는 10월 1~25일까지 29건이 발생, 3천608마리 감염, 710마리 폐사해 한달전에 비해 건수 65%, 감염 87%, 폐사 91%가 각각 감소하였다. 또한 올 1월부터 10월 25일까지 31만두가 감염, 8만1천마리가 폐사하였다. 이는 지난한해 379만8천마리 감염, 99만2천마리 폐사와 비교하였을 때 피해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는 중국이 PRRS 백신을 사용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일본

돼지고기 생산량이 소폭 증가

최근 일본 축산정보에 따르면 8월말 돼지고기

생산량은 57만2천여톤으로 '06년 동기간 56만여톤에 비해 1.5% 가량 늘었다. 이와 관련 일본 농림수산성은 최근 올해 돼지 출하예상을 통해 대규모 양돈농가의 사육규모 확대 영향으로 올해 출하두수가 다소 늘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일본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04년 88만여톤을 기록한 이후 모든 두수 감소와 질병의 영향으로 '05년 86만9천톤, '06년 87만4천여톤으로 감소하였다.

◆ EU

돈육 수출 보조금 지급한다

유럽연합(EU)이 최근 돈육 수출 부진을 털기 위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키로 하였다.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돼지고기 수출시 지역에 관계없이 세계 시장과 EU 시장에서의 가격차이만큼을 환급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미 달러화의 급격한 하락이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과 경쟁하는 유럽 양돈농가의 수출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 배경을 설명하였다. EU의 돼지고기 수출은 최근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유로화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면서 1분기 42만4천여톤으로 일년전보다 12% 감소하였다. 

(사) 한국종축개량협회

제4회 이사회 및 2007 임직원·대의원 수련회 개최

(사)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는 지난 12월 21, 22일 양일간에 걸쳐 직원 및 회원농가간의 친목도모와 회원농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협회 및 개량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충북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4회 이사회 및 임직원·대의원 수련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원가입 현황, 효율적인 가축개량을 위한 혈통관리세미나 결과보고, 2007한국홀스타인품평회 평가보고회 개최, 2007년도 한우회원농가 및 제0회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보고회 개최, 한우인증제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2007년 예산(종축개량회계)변경 승인의 건, 「2007년 특별상여금 지급 승인의 건」에 대한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제4회 이사회와 연계 추진된 이날 수련회에서는 직원들의 개량사업에 대한 자유토론의 기회를 마련하는 시간과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농업인의 정신함양 교육이란 주제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농가 및 직원간의 단결심 배양을 위한 극기산악훈련을 실시하여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조병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수련회는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축산인의 정신을 함양하는 동시에 단결심 배양을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에 극기 산악훈련 등을 넣은 만큼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종돈업경영인회 · 한국돼지AI 협의회

종돈장 · AI센터 PRRS안정화 대책 및 방역정책 설명회 개최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이희득)과 한국돼지AI협의회(회장



배상종은 지난 12월 6일 대전 유성아드리아 호텔에서 “종돈장·AI센터 PRRS안정화 대책 및 방역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PRRS 검사 의무화에 따른 대책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PRRS현장극복사례’ 등도 발표되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진단센터 박최규 박사는 “PRRS 발생역학과 방제전략 및 검사방법”이란 주제 발표에서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PRRS와 쉐코바이러스 및 살모넬라의 복합감염시 폐사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방제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PRRS 바이러스 배출이 심한 양돈장의 경우 생독백신 접종이 전파확률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분석하였다.

피그채널의 최지웅 수의사는 “PRRS 안정화 및 청정화 대책”에 대해 주제 발표가 있었다.

농림부 방역과 김정주 주무관은 “양돈질병 방역대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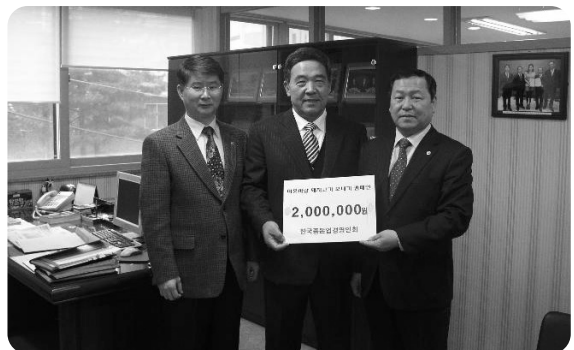
후군) 발생 농장에 PRRS 예방백신이 지원될 것이며, PRRS 발생이 심한 영세농가와 컨설팅을 통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08년 총 7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50만두의 모돈 및 자돈에 예방백신을 국비 70%, 지방비 30%로 100% 보조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한국종돈업경영인회

이웃사랑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에 200만원 기탁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이희득)는 지난 12월 27일 대한양돈협회를 방문 (사)대한양돈협회와 축산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에 성금으로 200만원을 기탁하였다.

이 회장은 “양돈협회와 축산신문이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은 양돈 산업 안정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활동"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돼지고기를 제공하여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하고, 양돈업 안정에 기여하고 싶다"며 기탁사유를 밝혔다.

피아씨코리아(주)

고능력 청정돈 546두 우성GP 농장 입고 완료

세계 제1의 종돈 육종회사인 피아씨코리아(주)는 지난 11월 12일 PIC(캐나다)로부터 원종돈 갱신용 후보 웅돈 10두와 신규 GP농장에 입식할 후보돈 546두를 수입하였다. 인천 영종도 계류장에서 15일 동안의 검역을 마친 종돈들은 11월 26~27일 2일에 걸쳐서 웅돈 10두는 서원 GGP 농장에 후보돈 546두는 우성 GP 농장에 입식되었다.

우성 GP 농장은 11월 초에 신축공사를 마친 농장으로 이번

수입종돈의 입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종돈 생산을 시작하여 2008년 10월에 피아씨코리아(주)한국형 후보돈 '나이스맘'을 일반 고객농장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피아씨코리아(주) 수의팀 윤용대 팀장은 "피아씨코리아(주)는 앞으로도 좋은 입지에 위치한 GP 농장들에서 생산된 고능력의 강건한 나이스맘 후보돈들을 고객농장에 분양하여 고객농가에서 최고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주) 금보육종

원주G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인증 획득

(주)금보육종의 2007년도 목표였던 축산물HACCP기준원으로부터 2007년을 마무리하는 12월 24일 인증획득을 지정받았다.

2007년 12월 18일 HACCP인증 심사를 위해 방문한 축산물HACCP기준원팀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모든 부분에서 흡족한 만족을 얻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원주GP HACCP인증 팀장인 장성훈 사장과 부팀장인 김현백 대리 그리고 임직원이 다함께 이루어낸 쾌거이다.

2007년 한해동안 HACCP인증획득을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난관도 많았다. 원주GP 사육규모를 확대를 위한 계속되는 증개축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HACCP 인증팀과 직원은 돼지만을 사육하기에도 많은 불편이 있는



▲ 검역을 종료하고 우성GP농장으로 종돈 수송

가운데에서도 계속되는 HACCP 교육일정에 불평불만 없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감수하였다. 이는 모든 임직원이 HACCP인증의 당위성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원주GP 인증획득을 이어 2008년에는 강원GPD HACCP를 인증받을 계획이다.

HACCP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주)금보육종은 청정강원도의 HACCP인증획득 종돈장으로써 영업망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주)송강지엘씨

보급형 돼지 임신진단기 AnyScan 해외 수출 개시



국내 초음파 진단기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주)송강지엘씨(사장 원성오)는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로 생산된

동물임신 측정용 초음파진단기 ANY SCAN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할 예정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나 향후 적극적인 해외 개척을 통해 대량판매를 하고 (주)송강지엘씨를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소코렉스사 동물용 주사기 가격 인상



(주)송강GLC가 스위스 소코렉스사의 동물용 주사기 판매를 그동안 행사가격인 9만9천원에 공급하다가 내년 1월부터 원가상승으로 인하여 110,000(VAT 포함)가격으로 공급한다.

(주)중앙진테크

2007년도 한해 마무리 하는 워크숍을 가져

(주)중앙진테크(대표 배규악 구 중앙무역)는 지난 12월 29일과 30일 정해년 돼지의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무자년 쥐띠의 해를 맞는 워크숍을 양평 근교에서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올 한해 있었던 양돈시장의 급속한 변화를



되새겨 보고 2008년의 준비를 하는 자리였으며 이번 워크샵에서는 특히 각 지역별 시장 변화와 그에 대한 열띤 토론이 수반되었으며 이번 기회로 인해 국내 양돈농가들이 겪고 있는 FTA로 파생되는 여러 고충을 같이 고민해볼 수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양돈기들이 없는 중앙진테크는 있을 수 없다는 기본 틀 안에 이들은 歲寒知節(세한고절) 즉 “추운 겨울철에도 혼자 푸르른 대나무”를 올 한해 회사의 표어로 삼고 폐사 중앙진테크와 양돈기들이 어려운 FTA한파에서도 우뚝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뛰자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현재 중앙진테크는 양돈기들의 원가 절감으로 인한 생산력 극대화를 위해 풍선주입기와 육질관련 동결장액의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 문의 : 02-587-1388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축산·사료 연구기술 대상 시상

재단법인 (주)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이사장 김기웅)은 지난 11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2007년 정기총회 및 카길애그리퓨리나 축산·사료 연구기술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수상자는 개인부문에 김병철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학장, 오상집 강원대 동물생명과학대학 학장, 윤화영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위성환 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장 등



이며 단체부분은 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한국팻산업협회(회장 김진오), 축산물HACCP기준원 농장팀(원장 광형근) 등이다.

개인부문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상패가, 단체부문 수상단체에는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었다.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은 지난 1997년 설립돼 축산 및 사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축산 및 사료분야의 기술과 연구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해 매년 '카길애그리퓨리나 축산·사료 연구기술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주)선진

양돈 산업 발전 기금 전달

(주)선진(대표 이범권)이 지난 27일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에 양돈 산업 발전 기금을 전달하였다.

선진은 최근 2008 소비자가 선정한 대한민국 우수축산물 브랜드 돼지 부문에서 대상과 함께 받은 상금 500만원을 양돈 산업 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이날 협회에 전달하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사무실 이전 기념식 가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12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대고빌딩 7층으로 이전하고 농림부 김달중 차관보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최상호 본부장은 기념사에서 “앞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정부의 방역위생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방역본부 제2의 도약기를 열어가자”고 강조하였다.

김달중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방역본부가 열악한 환경속

에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기관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며 “축산업 발전을 위해 주요 가축질병 조기근절의 첨병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트루라이프/서부사료(주)

2008년도 경영자마인드로 함께 나아가자

초일류식품종합그룹으로 한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 (주)트루라이프 /서부사료(주)(대표이사 정세진)는 지난 12월 7일 일산 웨스턴빌딩 대강당에서 '2008 경영전략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이 날 발표회에서 2008 경영전략을 ▲ 보증할 수 있는 식품생산 체계 운용 ▲ 식품사업 확산 ▲ 해외사업 활성화 ▲ 그룹사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으로 정하고, 각 본부 및 12개부서의 경영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세진 대표이사는 총평을 통해 “임직원 모두 2007년 한 해 고생 많았다 2008년에도 경영자마인드로 초일류식품 종합그룹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하였다.

축산과학원

돼지 뒷다리 발효 생햄 개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돼지고기 뒷다리를 염지와 자연발효, 숙성의 과정을 거쳐 생산하는 발효 생햄을 개발하였다. 발효 생햄은 상대적으로 소비량이 적은 돼지 뒷다리를 활용함으로써 이 부위의 소비를 늘리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학원은 발효생햄으로 가공할 경우 6kg당 3만5천원인 돼지 뒷다리 고기를 50만원으로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의 유명한 생햄 3종과 관능특성 비교 결과 이탈리아 생햄과 함께 기호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뒷다리살 소비 증대 효과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축산물등급판정소

2007년도 등급판정결과 고급육 생산 왕중왕, 한동수(돼지), 김상준(한우) 농가 선정

축산물등급판정소장 이재용)는 2007년 12월 14일(금) 오후 2시에 본부 대회의실에서 지난 1년(06.10.1~07.9.30) 동안의 등급판정 자료와 해당농가의 실사를 토대로 고급육 생산비율이 가장 높은 농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다.

본 행사는 고급육 생산을 통한 소득 향상과 우리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인 농가에 대한 격려와 함께 이들 농가의 품질관리 Know-how를 널리 알려 국내 축산물의 고품질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우수농가 선발기준은 돼지의 경우 연간 2천두(등급제외)이상 출하한 농가 중 A등급이 50% 이상이고 7월 이후 육질 등급 1등급이상 출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한우는 연간 30두 이상 거세우를 출하한 농가로서 육질 1등급이상 이 55%이고 육질과 육량등급이 다 같이 우수하여야 한다. 돼지부분 대상(농림부장관상)의 한동수농가는 1등급이상 90.4%, A등급 58.6%, 최우수상(소장상)의 박대열농가는 1등급이상 84.9%, A등급 63.2%, 최우수상(양돈협회상)의 진남주농가는 1등급이상 81.7%, A등급 60.6%의 출현율을 나타냈고, 한우부분 대상(농림부장관상)의 김상준농가는 1++등급이 70.4%(1등급이상 96.3%), 최우수상(소장상)의 이상철농가는 1++등급이 54.3%(1등급이상 94.3%), 최우수상(한우협회장상)의 김용진농가는 1++등급이 54.5%(1등급이상 94.3%)의 출현율을 보였다.

이번에 표창을 받는 농가는【돼지부분】농림부 장관상 한동수(충북, 소장상 박대열(경남), 양돈협회장상 진남주(강원), 우수상에 이희철(경기), 이훈(경기), 권오택(강원), 이규연(충

북), 양은석(충남), 이용문(전북), 정병철(전남), 송광복(경북), 엄홍주(경남), 장재철(제주)이, 【한우부문】농림부 장관상 김상준(전북), 소장상 이상철(울산), 한우협회장상 김용진(제주), 우수상에 양영귀(경기), 최병학(경기), 남정국(강원), 이근범(충북), 김중희(충남), 이근수(전북), 류호진(전남), 이승래(경북), 임희열(경남), 박석운(제주)이다

올해 5회째 맞이하는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축산물등급판정소 이재용 소장은 농가가 1년간 열심히 기른 소·돼지에 대해 등급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표창하는데 의의가 크다면서, 해가 거듭할수록 품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등급판정결과 우수농가 선발과 시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부경양돈조합

연예인 이경규씨와 포크밸리 족쌈 체인사업 협약

부경양돈조합(조합장 이재식)은 지난달 18일 조합 회의실에서 연예인 이경규씨와 ‘포크밸리 족쌈 체인사업’ 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부경양돈조합과 이경규씨는 이날 족발, 보쌈 전문 체인점을 확대해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확대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주)건지

창립 12주년 기념 워크숍 및 등반대회 행사 가저

(주)건지(대표이사 곽춘옥)는 지난 11월 27일 창립 12주년을 맞아 “세계를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무주리조트에서 24~25일 2일간의 워크숍을 가졌으며 창립기념일 당일 영업팀에서는 지리산 천왕봉 등반대회를 가지고 팀의 단합과 발전을 꾀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전에 실시했던 기념 행사와 달리 회사 직원들 간의 화합뿐 아니라 창의적인 발상, 축산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2가지의 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가저 보다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를 넘어 미래로”라는 슬로건처럼 현재 축산업의 위축에 따른 기자재 산업의 위기 상황속에서 “위기는 기회”이며 “유지는 곧 퇴보”라는 신념으로 세계화를 넘어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꿈을 위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주)우성사료

천안연암대학에 장학금 전달

축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축산학도들에게 (주)우성 사료 대표이사 지평윤가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지난 11월 23일 천안연암대학에서 진행된 장학금 수여식은 성적이 우수한 김현옥 학생 외 7명에게 총 400만원이 수여되었다.

오종균 우성사료 상무이사는 격려사를 통해 미래 축산업을 이끌어 갈 축산학도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FTA, 고 곡물가 등 사회전반적으로 어려운 축산 환경이지만 축산학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우성사료는 지난 4년간 천안연암대학 우수학생 28명에게 총 1천 4백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신제품 안내

대한제당(주) 무지개사료

신제품 메가시리즈 출시



대한제당(주)무지개사료가 최근 변경된 도체등급 판정 기준에 적합한 신제품 '메가시리즈(메가 1호, 메가 1.5호, 메가 2호)'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시판에 나섰다.

이번에 출시한 메가시리즈는 영국 BOCM 파울사와 기술제휴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출하등급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특히 최근 등지방 증체비중이 등급 출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 배합기준을 등지방이 증체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였다.

메가시리즈는 또 돼지에게 최적의 영양소를 공급해 후기 성장정체현상을 해소하고 출하등급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